

도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기준 개선안 마련

기존 학급수 외 학생수 등 모두 변인으로 반영... 2인 행정실 축소·직급상향

전국 최초로 지방공무원 설문조사·회귀분석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학급수(일부 학생수 적용)만을 기준으로 적용되던 정원배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변인을 반영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북교육청의 단위학교 학급수 구간별 지방공무원 정원은 타 시도교육청 대비 높은 수준이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력 배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2인 행정실 축소와 저경력자의 직급상향을 통한 업무 부담 최소화에 대한 요구도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와 행정연구회가 중심이 돼 지난 2월부터 지방공무원 대상 통계분석기법의 일환인 회귀분석, 설문조사 등을 진행, 업무 가중 요인을 반영한 정원배정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의 학급수 외에 학생수·학교급·교육공무원직수·건물연면적·3년 평균결산액 등을 모두 변인으로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운동부·공동조리교·기숙사 유무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청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지방공무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기준 개선 설명회를 열고, 개선 내용과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

최소 2인에서 최대 7인으로 배정된다.

2인 행정실에서 22개교는 3인으로 증원된다. 또 6급과 8급이 근무하는 2인 행정실 중 32개교(31%)는 8급이 7급으로 직급상향이 이뤄져 업무 부담을 한층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적 분석을 기초로 업무 가중 변인을 모두 반영한 정원배정기준 적용은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24일 청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지방공무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기준 개선 설명회를 열고, 개선 내용과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

박성현 행정국장은 "2026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감원된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번 각급학교 정원배정기준 개선은 단위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 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배정기준이 갖고 있던 한계와 불평등성을 보완해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조하림 국제처장 등 전북대학교 방문단은 지난 15~18일 중국 호북성의 중국지질대학교, 호북대학교, 무한직업기술대학교, 무한철로직업기술대학 등을 방문해 이 대학들과 2+2 학부과정 프로그램 중의합작프로그램, 교환학생, 대학원 진학 협력을 포함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中 호북성 주요 대학들과 맞손... ‘유학생 5천명 유치’ 청신호

전북대, 중국지질대·호북대·무한직업기술대 등과 2+2 학부 프로그램·교환학생 협력 구체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중국 호북성 주요 대학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유학생 5천 명 유치에 청신호를 켰다.

지난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조하림 국제처장 등 방문단은 지난 15~18일 중국 호북성의 중국지질대학교, 호북대학교, 무한직업기술대학교, 무한철로직업기술대학 등을 방문해 이 대학들과 2+2 학부과정 프로그램 중의합작프로그램, 교환학생, 대학원 진학 협력을 포함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국립 자연과학 특화 명문대학인 중국지질대학교와 2+2 학부과정 프로그램, 초청교환학생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2026년 3월부터 우수 유학생 40여 명을 유치하기로 합의했으며,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북대학교 소개와 더불어 전북대 입학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개교 94년의 역사를 지닌 호북성 지역 명문대학인 호북대학교와는 학술교류협정(MOU) 체결을 진행했으

며,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 대학원 진학, 공동 연구 방안 등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호북대학교 현지의 우수 인재들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더불어 무한직업기술대학교, 무한철로직업기술대학과도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3+2프로그램을 활용한 전북대 편입과 석사과정 진학을 협의했고, 초청 교환학생 및 중의합작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유학생 유치와 우수 인재 양성을 강화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치유농업과, 일본 도쿄농업대학과 협약

전주기전대학 RISE 사업단(단장 조덕현)은 일본 도쿄농업대학 디자인농학부와 치유농업 및 농복(農福) 연계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이 협약식은 일본 도쿄농업대학에서 진행, 전주기전대학에서는 치유농업과 학과장 등 교수 3명, 재학생 12명이 참석했다. 도쿄농업대학은 디자인농학부 아베 교수가 대표

로 참여해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농업·원예기반 치유 프로그램 공동 개발 △농복연계 연구 △교육·현장실습 교류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치유농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창출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장은성 기자

“한 사람 한 사람 성장 지원하는 대학”

전주대 제17대 총장에 류두현 전 대외부총장 선임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사장 차중순)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제17대 총장에 류두현 전 전주대학교 대외부총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인 이사회에 따르면 류두현 신임 총장은 교육·연구·산업 현장 을 두루 경험한 실용적 리더로서, 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 혁신을 이끌 적임자다.

류 신임 총장은 한양대학교 공업 화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석사,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전주대학교 환경생명 과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대외 부총장, 대학원장, 선교봉사처장, 교무처장 등 대학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교육과 연구, 행정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실용학문 중심의 대학 발전 전략을 다수 주도하며 전주대학교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했다.

이후 2023년 8월 말 정년퇴임 후 현재 전주대학교 국제영재아카데미 교장을 맡고 있다.

신임 총장 임기는 11월 1일부터 4년간이다.

류두현 총장은 “전주대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위에 세워진 대학으로, 신앙과 학문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통해 진리와 사람을 실천해야 한다”며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혁신 허브로 만들고, 학생 중심의 교육·글로벌 연계 연구·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디지털 혁신, 산학연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류 총장은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교육의 진정성에 있다”며 “지역사회와 세계가 함께하는 열린 캠퍼스를 구축하고,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로부터 문학·그림책을 기증받는 도서 기증식이 열렸다.

“아이들의 꿈 키우는 밑거름”

전북교육청, 굿네이버스로부터 도서 기증받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4일 5층 회의실에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로부터 문학·그림책을 기증받는 도서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전북 지역 아동의 기초 학력 및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굿네이버스는 (주)바이오스마트에서 기부한 시공사 도서 총 2만4,492권(63종)을 기증했다.

기증받은 도서는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6개 학생교육문화관과 14개 시군 지역아동센터에 배부해 학생들이 양질의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들

을 위해 귀한 도서를 기증해 준 굿네이버스와 (주)바이오스마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운주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장은 “이번에 전달된 도서가 전북지역 아동들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교육청과 협력해 지역사회 아동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 전북지부는 나눔 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사회개발 교육사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VISION EXPO & 비전 대동제’ 성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3일 내대관과 혁신관 일원에서 ‘AI 창의융합혁신 RISE-UP VISION EXPO(졸업작품전)’와 ‘2025 비전 대동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VISION EXPO에는 13개 학과 1,000여 명의 대학생과, 전북권 고등학교 학생 약 100명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전시에는 △스마트모빌리티 △DX융합기술 △휴먼라이프케어 △K-컬처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151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AI·3D프린팅·드론 영상 등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스태프 투어 이벤트가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개막식에는 남관우 전주시장, 김희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영석 특별자치 교육협력국장 등 3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지식재산처장상, KBS전주방송총국장상 등 15개 기관상이 수여됐다.



같은 날 오후 열린 비전 대동제는 정진 총학생회가 주관해 ‘학우들의 꿈 위에 바른 길을 놓고, 진취의 꽃을 피우다’를 슬로건으로 펼쳐졌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모토인형 만들기, 불량식품 부스, 추억의 오락실 체험존 등에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총장님이 쓴다! 치킨 이벤트’가 큰 화제를 모았다. 저녁에는 ‘복면가왕’ 경연을 비롯해 오아시스 댄스 팀·치어리더 공연, 래퍼 스키니브라운(Skinny Brown)의 축하무대가 이어졌다. /장은성 기자

도내 중 1 학생 대상

NASA 글로벌 캠프

‘2025 나사(NASA) 글로벌 캠프’를 위해 도내 중학교 1학년 학생 24명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캠프는 과학적 사고력 배양과 이공계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선진 과학기술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11월 1일까지 7박 9일간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첫째 날은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NASA Goddard Space Center)를 방문해 위성 개발, 우주탐사, 지구환경 관측 등 실제 우주 연구시설을 견학하고, 연구진과도 교류할 예정이다.

둘째 날은 스미소니언 국립항공우주 박물관과 조지타운대학교를 탐방하며, 미국의 첨단 과학문화와 대학 교육환경을 체험한다.

더불어 워싱턴 D.C.의 주요 역사·문화 명소를 둘러보는 문화체험 활동도 병행한다.

이후 앨라배마주 헨츠빌로 이동해 본격적인 나사 스페이스 캠프(NASA Space Camp)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나사 스페이스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로켓 제작 및 발사 실험 △무중력·중력 체험 △우주비행 시뮬레이션 △탐험 미션 수행 △탐구 프로젝트 발표 등 실제 우주비행사 훈련 수준의 과학탐구 활동을 경험한다. /장은성 기자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싱가포르서 해외문화체험

전북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해외 문화체험학습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7~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30명이 참여하는 하반기 해외문화 체험학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해외문화체험학습은 장애학생 눈높이에 맞는 배움과 도전 기회를 제공해 장애 학생의 세계 시민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학생들은 3박 5일 동안 국립박물관, 센토사섬, 조류 공원 등 싱가포르 랜드마크 곳곳을 누비며 평소 장애로 인해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배움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특수교육 기관 방문을 통해 현 지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 다양한 특수교육활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주교육나눔한마당 성료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지난 24일 영제교육원 일원에서 ‘2025 전주교육나눔한마당’을 개최했다. ‘실력쟁김, 마음쟁김’을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는 학생중심 수업 방향 설정과 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 나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깊이 있는 교실 수업 공개와 우수한 교육활동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1부는 마음쟁김 전체 특강으로, HD행복연구소장 최성에 박사가 ‘교사의 마음 건강 쟁김,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교원의 내면 회복력을 키워 행복한 교실을 함께 만들어가는 내용을 담았다.

2부 실력쟁김 사례 나눔에서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개념기반 탐구수업 △학교교자율시각 △전북미래학교 △IB교육△AI·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 유치원 2팀, 초등 8팀, 중등 8팀 총 18팀의 학교 교육활동 및 수업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전주교육지원청은 오는 31일까지 ‘교육활동 나눔’ 기간을 운영, 학교 밖 교사 간 대화와 소통으로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채선영 교육장은 “2025 전주교육나눔한마당과 교육활동 나눔 기간을 통해 학생에게는 배움의 확장을, 교사에게는 실력과 마음쟁김, 교육공동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